

‘오롯이 장미’ 도심 꽃축제로 가즈아~

전국적인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조선대학교 장미원에서 펼쳐지는 제17회 장미축제가 11-12일 2일간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평년보다 빨라진 봄꽃의 개화 시기와 5·18 추모기간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겼다. 주제는 ‘오롯이 장미’로 소소한 즐거움이 있는 장미음악다방, 단오부채만들기, 민속놀이체험, 폴라로이드 사진 등의 프로그램과 포토존이 운영된다.

축제는 대학 고유 브랜드로 자리 잡은 장미축제의 개최 목적인 지역민에 대한 보은과 대학 인프라의 지역 공유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축제기간 중 시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었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또한 박물관, 장항남 박물관, 미술관, 김보현 미술관 등 대학 역사문화 기관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보현 미술관에서는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남도화단의 모태인 조선대 화파를 조명하는 특별전 ‘찰나의 빛, 영원한 색채, 남도’을 개최한다. 조선대 화파라 불리는 오지호를 비롯한 임직순, 백영수 등의 작가들은 남도의 강렬한 빛과 풍요로운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아 색의 조련

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약 10만년 전에 시작된 호남 역사의 시작과 발달과정을 볼 수 있는 ‘구석기인들의 낙원, 보성강’ 특별전이 펼쳐진다. 지난 20여년간 박물관 연구원들이 직접 조사하고 발굴했던 유물들을 통해 호남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의 시원에 다가서려는 뜻에서 기획된 전시다.

170년 정보통신의 역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항남정보통신박물관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17점의 전시물 등 4천500여 점의 정보통신기기가 전시돼 있다. 지금은 보기 힘든 오래된 전화기,

라디오, TV, 안테나, 컴퓨터와 에디슨의 축음기, 타이타닉호에서 사용하던 모르스키 등 특색 있는 기기들을 만나볼 수 있다.

축제 하루 전날인 10일에는 장미축제 기념으로 ‘대학과 지역의 따뜻한 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조선대 노인복지센터, 작업치료학과 교수 및 학생, 조선대병원, 조선대치과병원 등과 함께 지역 독거 어르신 70명을 초청해 장미원 관람과 점심 대접, 건강 검진 등을 실시한다.

한편, 조선대 장미원은 2001년 5월 의과대학 동문을 중심으로 모교와 후배를

조선대 장미원 8천299㎡ 규모 227종 1만8천주 활짝
오는 11-12일 주차장 개방·역사문화기관 무료 관람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학생들이 감성을 키우고 인격을 수양해 전문지식뿐 아니라 사회의 아픈 곳을 되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전문인이 되기를 바라는 선배 동문이 기부를 해 2003년 2월에 1차로 조성했고, 광주은행의 기부금과 지역민, 교직원 및 학생의 뜻을 모아 2008년 9월 현재의 장미원으로 확장했다. 총면적 8천299㎡에 227종 1만7천994주의 장미가 식재된 장미원은 유지원생과 초등학생의 견학장소는 물론 수많은 관람객이 찾는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장미꽃 한 송이 한 송이에는 1946년 호

남지역을 중심으로 7만2천여 설립동지회원들의 자발적인 출연과 참여로 설립된 조선대가 호남 명문 사학으로 성장하도록 성원해준 지역민에 대한 보은의 뜻이 담겨 있다. 특히 장미원에 식재된 장미 가운데는 모나코 왕비 그레이스 켈리에게 봉헌된 프린세스 드 모나코를 비롯해 세계 장미 콘테스트에서 1등을 차지한 각양각색의 장미들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과시한다.

장미원은 연중무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한다. 야간에도 조명이 설치돼 관람이 가능하다. /김종민기자

“씩씩하고 정의롭게...마음껏 꿈 펼치길”

광주시·전남도교육청, 어린이날 메시지 발표·축하행사 참석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제97회 어린이날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하고 축하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장항남 미술관에서는 지난 5일 광주시립미술관 앞마당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날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수리, 달이 캐릭터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등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기념식에선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 수리 달이 캐릭터 미니수영대회도 열렸다. 장 교육감은 “미래의 주인공, 나라의 보배들이 건강하고 정의롭게 자라서 소중한 꿈을 펼칠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 누리집에 “씩씩하고 정의롭게 자라서 소중한 꿈을 꼭 펼치기 바란다.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며 함께 하겠다”며 어린이날 축하 글을 올리며 학생들을 향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앞서 장 교육감은 관내 5개 특수학교 학생 대표들을 교육감실로 초대해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학생들은 다과와 장 교육감이 따로 준비한 선물을 하나씩 받았다. 이어 방문 소감과 각자의 꿈, 교육감에게 바라는 의견들을 말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지난 3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협동학교군(목포임성초, 목포상동초, 목포중앙초) 연합 체육대회에 참석해 전남 유지

원 및 초등학생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장 교육감은 “레고는 6개의 블록만으로 9억개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면서 “전남의 유지원 및 초등학생들이 모두 자기 빛깔의 꿈을 펼친다면,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미래는 보다 다채롭고 멋진 세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여러분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거침없이 새로운 도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행복한 전남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이날 3개 협동학교군 어린이 320여명과 함께 협차게 준비운동을 하고, OX 퀴즈에도 참여하며 어린이날을 축하했다. 연합체육대회는 개회식에 이어 ‘통일 어울림 한마당’ 1, 2부로 나눠 진행됐다. /김종민기자

“엄마의 따뜻한 사랑으로 아이들 품다”

도교육청, ‘2019 맘-품지원단’ 170명 발대식 성료

전남학생들을 따뜻한 엄마의 사랑으로 보살피 학교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구해낼 ‘2019학년도 맘-품지원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보성다비치콘도에서 맘-품지원단 170명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맘-품지원단은 한부모 가정 및 돌봄이 필요한 배려대상 학생들에게 엄마의 따뜻한 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맘-품지원단원은 아이들에게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도내 거주 어머니 170명으로 구성됐으며, 무보수로 활동한다.

이날 우수사례를 발표한 화순지역 맘-품지원단 어머니는 “학생들에게 보람된 일이라면 계속 돕고 싶다”며 계속적인 활동의지를 보였다.

장석웅 교육감은 “맘-품지원단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어주고 있는 진정한 어머니”라면서 “여러분의 헌신 봉사로 인해 전남교육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공간,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터가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맘-품지원단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외집’도 배려대상 학생들이 미용실, 목욕탕, 병원, 식당 등 실생활에서 필수적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340개 업소가 신청해 운영된다. /김종민기자

광주대 여학생 ROTC
호남지역 최고 합격률

광주대학교는 최근 2019학년도 여학생 ROTC(학군사관) 60기 선발시험에 응시한 국방기술학부 여학생 16명이 전원 합격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최종선발에서 8명 중 7명이 합격해, 호남지역 최고 합격률을 기록한 데 이는 괄목할 만한 성과다. 특히 여자 후보생은 남학생과 달리 전국을 10개 권역별로 구분해 선발, 호남지역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국방기술학부 김찬환 학부장은 “2차 시험에도 철저히 준비해 군 장교로 취업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대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 장교시험을 대비한 소직교육을 진행,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종민기자



3·1 독립선언문 필사 챌린지 운동

광주시교육연수원(원장 김동일)은 최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독립선언문 필사 챌린지 운동을 가졌다. 김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독립선언서 전문을 읽어보고 38항 전문 중 자신이 맡은 부분의 말은 항을 필사했으며, 이를 통해 3·1정신의 의미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숭고한 삶을 추모했다. /광주시교육연수원 제공

전남대 수시모집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한다

2020학년도 전체 인원 73% 선발...복수지원 3회로 늘려

전남대학교가 2020학년도 수시모집 모집요강 및 2021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6일 전남대에 따르면 2020학년도 수시모집 3천76명(73.6%), 정시모집 1천103명(26.3%)을 선발한다. 여기에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모집인원은 제외된다.

정시모집 인원은 2019학년도 1천36명(24.8%)에 비해 67명 증가했다. 전년도에 비해 학생부교과(일반전형)은 다소 축소된 1천728명을 선발하고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은 545명,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전형) 471명으로 전년

도에 비해 늘었다.

수시모집에서 달라진 점은 학생부교과(일반전형) 전형방법이 학생부 80%, 교과서열평가 20%에서 학생부 100%로 변경됐고, 학생부교과(예능우수자전형)가 신설됐다. 학생부종합일반전형은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전형)으로 바꿨으며, 학생부종합전형에 있었던 농어촌학생전형과 특성고교졸업자전형은 올해부터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한다.

자기소개서는 전면 폐지돼 수험생의 부담을 덜도록 했고, 수시모집 복수지원(고교생활우수자전형) 471명으로 전년

도 전남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은 지원자의 나이 및 졸업년도 제한이 없다.

모집단위의 변화로 문화사회과학대학 문화관광경영학과가 신설됐으나, 경영대학 경제학부 지역개발학전공은 폐지됐다. 여수캠퍼스에 있던 사범대학 특수교육학부는 광주캠퍼스 교육융합관으로 이전됐다.

전남대 2020학년도 수시모집 모집요강 및 2021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1-Click Service (<http://ao.chonnam.ac.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전년도 입시결과 및 모의진단 서비스, 면접 안내영상 등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 /김종민기자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
(주)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상담문의. 최 선 규 H.P 010-3605-5000